

광주 30도 이상 무더위 도래일 20년 전보다 12.7일 앞당겨졌다

한국 8월 고온 면적, 9년새 2배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분석

8월 평균 한낮 지표면 온도가 섭씨 30도를 넘는 국토 면적이 최근 9년 사이 2배로 커졌다는 환경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5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위성 모디스(MODIS)가 2002~2019년 수집한 오후 1시 30분 기준 지표면 온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8월 평균온도가 30도를 넘는 지표면 면적을 고온 지역으로 분류해 집계한 결과, 한국의 경우 2002~2010년에는 국토의 12%만 고온 지역이었으나 2011~2019년에는 27%가 해당했다.

2011~2019년 강원도 태백산맥 일대를 제외한 전 국토의 87%에서 온도 상승이 관찰됐으며, 서울을 포함한 일부 지역(국토 면적 약 6%에 해



당)에서는 지표면 온도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오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린피스가 기상청 자료를 놓고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이 연중 처음 도래한 시점을 1981~2000년, 2001~2020년 시기로 나눠 비교한 결과, 주요 8개 인구 밀집 대도시 가운데 인천과 대전을 제외한 광주 등 나머지 6개 도시에서 시점이 앞당겨졌다.

특히 광주의 경우 30도 이상 무더운 날이 처음 시작된 시점이 무려 12.7일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11.5일)과 서울(10.6일), 수원(9.3) 등도 앞당겨지는 기간이 10일 안팎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결과 그린피스는 한국 인구의 절반을 넘는 2700만명이 8월 온도가 30도 이상인 지역에 사는 것으로 추산했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김지석 기후에너지 전문가가는 "폭염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광주 AI집적단지 조성때까지 집중해야”

이용섭 시장, 임해숙 과기부장관 만나 건의

이용섭 광주시장은 5일 임해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광주 인공지능(AI) 산업의 미래를 논의했다.

하계휴가 중인 이 시장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인공지능(AI) 전국 거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디지털 뉴딜 2.0'과 관련해 AI 중심도시를 추진해 온 광주시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디지털 뉴딜 2.0 구상안으로 인해 지역 여론과 AI 기업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도 선도국가와 경쟁하고 그 생태계가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



서는 실리콘밸리가 미국을 넘어 세계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2024년 광주에 인공지능 융합산업 집적단지가 조성될 때까지 광주에 더욱 집중할 때"라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집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광주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광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친환경차 민간 충전인프라 지원 확대

완속충전기 1기 당 200만원 공공시설 부지 주차장도 지원

광주시는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그린 모빌리티 확대 보급을 위해 설치 수요가 많고 설치 단계 및 운영비용이 저렴한 민간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1차 지원 사업에 이어 완속충전기(7kW) 1기 당 200만원씩을 지원한다.

또 지원 가능 설치 장소도 그동안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 등 민간부지 주차장으로 한정했으나, 충전인프라 보급을 확산하기 위해 공공시설 부지 주차장도 지원 가능 설치 장소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은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민

간충전사업자로,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오는 16일부터 9월24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해 시 대기보전과에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민간 공용충전기 설치 지원 사업 공고'를 검색하면 된다.

광주시는 최근 자동차 시장이 전기자동차 시대로 급속히 전환됨에 따라 충전인프라 확보를 위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등과 함께 현재까지 공용 급속충전기 311대, 공용 완속충전기 2203대를 구축했다. 또 한국전력공사에 올해 개별형 공용 급속충전기 27대를 설치할 계획이다.

나해전 광주시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미래 친환경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확충이 선결 과제"라면서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가 5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21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시상식'에서 브랜드 쌀로 선정된 농협(RPC) 대표들에게 상패를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대상에 수상한 '대숲 맑은 담양쌀'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됐으며 지난 2016년 대한민국 명품 쌀 대상에 수상하기도 했다.

“전남, 고품질 쌀 메카로 만들겠다”

김영록 지사, 브랜드쌀 시상식

김영록 전남지사는 5일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 시상식을 갖고, "전남을 고품질 쌀 생산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2021년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로 선정된 업체 관계자를 격려하고, 이들과 전남쌀 고급화를 위한 쌀산업 발전 방안도 논의했

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담양 대숲맑은 담양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강진 프리미엄 호평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우수상(3개)은 함평 나비쌀, 고흥 수호천사건강미, 순천 나누우리가, 장려상(5개)은 보성 녹차미인보성쌀, 영광 사계절이사는집, 무안 황토랑쌀, 해남 한눈에반한쌀, 곡성 백세미 등이 각각 수상했다.

상금은 대상 3000만원, 최우수상 2500만원, 우수상 각 1500만원, 장려상 각 1000만원 등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3년부터 매년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발해 왔다. 올해는 13개의 브랜드가 경합을 벌여 한국식품연구원, 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등과 심사한 끝에 10개 브랜드를 최종 가렸다.

김 지사는 "전남 쌀은 올해 여성이 뽑은 최고의 친환경 쌀 대상을 수상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며 "품질 좋은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농업인, 생산자단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농작물 호우 피해농가 275억 지원

해남·장흥 등 17개 시·군 생계비·농작물 농약대 등

전남도는 지난 7월 초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275억원의 복구비를 지원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복구비는 지난달 5일부터 4일간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해남, 고흥 등 17개 시·군에서 벼, 고구마, 고추 등 농작물 2만 8178ha가 침관수 등의 피해가 발생해 따른 것이다.

지원기준은 농약대의 경우 작물별로 1ha당 벼 100만원, 채소·과수류 250만원이며, 대파대는 업체 300만원, 과채류 450만원이다. 농가별 피해 정도에 따라 생계비와 영농자금 상환연기, 이자감면 등도 지원하게 된다.

농가의 신속한 경영안정을 위해 이달말까지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

특히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장흥, 강진, 해남 등 3개 군과 진도 진도읍, 지산면 등 4개 읍·면은 복구비 중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지방세,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도 감면돼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침관수 피해를 입은 농작물에 대한 조기 퇴수와 병해충 방제, 과수원 토사 정비 등 응급복구에 전력을 다했다. 또 복구지원 계획에서 누락된 농가가 없도록 정밀조사도 철저히 했다.

김경 전남도 식량위생과장은 "태풍, 호우 등 빈번하게 발생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선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피해 복구비가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내 9만 4257농가가 13만 2871ha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했다. 이 가운데 태풍 등 피해를 입은 4만 9687농가가 1866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가발

광주전남 기능장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기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